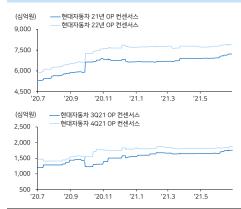
Daily Auto Check 2021. 8. 5(Thu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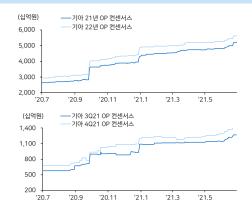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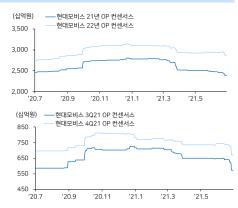
자동차/타이어 Analyst 김준성 02.6454-4866 joonsung.kim@meritz.co.kr

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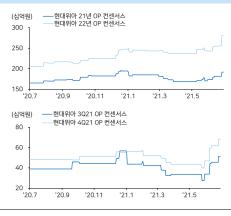
현대차 / 기아 / 현대모비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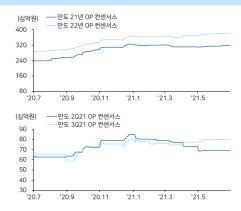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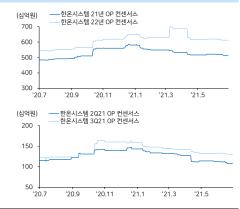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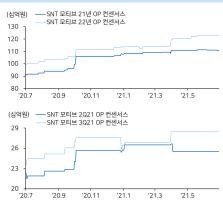
현대위아 / 만도 / 한온시스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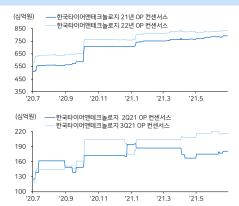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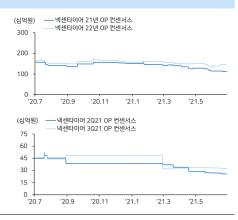




S&T모티브 / 한국타이어 / 넥센타이어







자료: Bloomberg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국내외 주요 뉴스

美 흘린 현대차 · 기아···제네시스, 3개월째 판매 신기록 행진 (파이낸셜뉴스)

현대차ㆍ기아에 따르면 7월 미국 시장 판매랑은 전년 동월대비 29.1%가 증가한 14만3,779대로 집계. 특히 제네시스는 5,180 대를 기록해 처음으로 월간 기준 5000대를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. https://bit.lv/2TTo90J

현대차 경형 SUV 온라인으로 살 수 있나 (조선일보)

현대차가 국내에서 차량 온라인 직접 판매(D2C · Direct to Consumer)를 추진. '광주형 일자리'로 알려진 광주글로벌모터스 (GGM)에서 위탁 생산하는 경형 SUV 모델이 대상. 테슬라 등 해외 업체도 온라인 판매를 확대하는 추세.

Wall Street second-quarter earnings expectations, raises 2021 guidance (CNBC)

GM 2021 매출은 컨센서스(\$30.9b)를 상회하는 \$34.17b를 기록, 조정EPS는 리콜 비용으로 인하여 컨센서스(\$2.23)를 하회 한 \$1.97을 기록, 연간 이익 가이던스를 \$10 ~11b 에서 \$11.5~13.5b로 상향함. https://cnb.cx/37vNOib

벤츠, 그로브-베르케와 배터리 협력 구축…전기차 전략 'First→Only' 전환 (THE GURU)

메르세데스-벤츠는 3일(현지시간) 자료를 내고 그로브-베르케와 차세대 배터리 생산을 위한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고 밝힘. 오는 '30년까지 전동화 전환 완료를 목표로 하며, '26년까지 ICE 투자가 '19년 대비 80%만큼 감소 계획. https://bit.ly/37heGDY

[車 수출 단가 2만 달러] 현대차 3개 분기 신기록 세우며 견인... '올라도 더 잘 팔린다' (아주경제)

현대자동차가 3개 분기 연속 대당 수출 단가 2만 달러를 넘어섬. 부가가치가 높은 SUV와 친환경차량 중심의 수익성 확대 전략이 주효했으며, 주목할 점은 가격 상승에도 오히려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. https://bit.ly/3ypQuLN

현대차 투자' 英 어라이벌, 자율주행 최초 성공 (THE GURU)

현대차그룹이 투자한 영국 상용 전기차 업체 '어라이벌'이 처음으로 자율주행에 성공. 자체 개발하고 있는 'Automated Driving System · ADS'이 활용됨. 지속해서 VDS 테스트를 진행, 안전성 검증 이후 일반도로에서 테스트 진행 계획. https://bit.ly/3yqRJKm

급난도 못 막는다' 상반기 글로벌 EV 판매량 3배 급증 (오토데일리)

InsideEVs 에 따르면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여파에도 올해 상반기 글로벌 플러그인카(EV+PHEV) 판매량은 254만6,768 대로 95만76대를 기록했던 지난해 상반기보다 3배가량 증가. 시장점유율은 2.9%에서 6.3%로 상승함. https://bit.lv/3ICI0vt

애플, 자율차 실험 확대…'애플카' 다시 속도내나 (ZDNET Korea)

애플은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자율주행 실험 차량 한 대를 더 추가하여 총 69대의 실험차량을 배치하고, 실험 운전자 수도 92명으로 늘어나 2년 전인 2019년 8월과 같은 수준에 도달. 웨이모는 실험차량 615대 운행 중. https://bit.lv/3lBdu6L

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 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 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, 대여, 배포 될 수 없습니다.